

문화광장



장수명
동화작가

“어쩌다 인류는, 태초에 존재한 언어,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기계화된 도구의 인간들이 되었을까?”

머지않은 세상에 우리 인류는 어쩌면 저런 탄식을 곳곳에서 쏟아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불쑥했다. 그것마저도 몇몇의 기억 전달자들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이들만 하는 탄식의 소리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온 몸에 소름이 돋는다. 정말 나의 아이들, 그 아이들

헌터 (THE Hunter)

의 후손들은 이제 곧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치, 당장 목도(目睹)한 현실처럼 무섭게 엄습해 온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작년 한 해 2020년을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당면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활을 해야 했다. 서로를 잠정적인 감염자들로 보고 거리를 뒀고, 왕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하던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생활에 길들여지고 구성되어진 사회체제에서 소시민들이 일반 자영업자, 노동자 그리고 예술인들은 과연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야 할지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18세기 말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대처럼 모든 것들이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진 속에

서 오로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만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진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 때 같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해가 바뀌었다.

2021년, 사람들은 올 해를 웅장하는 현소의 해 신축년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두렵다.

과연 웅장하는 현소의 해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인지... 신속하고 적합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보다 빠르게 변이하고 있다는 ‘코로나19’의 소식을 접하면서 다만,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2020년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덧붙여,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의 한 공간을 오고가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21세기, 인류가 신이 되기를 꿈꾸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기대 생명체인 지구가 스스로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낸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 인류는 삶의 나침반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았다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그의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이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생존할 권리가 있다. 그 생존권 앞에 우리는 겸허해져야 한다. 그런 후, 무엇보다 인류도 지구를 구성하는 한 부분의 자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고 자생력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모두 헌터(hunter)가 되어서, 조금만 더 참고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을 다 하자!

사설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 지원책 서둘러야

앞으로도 종전처럼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주 연장된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들도 경영난을 겪으며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한라일보가 보도한 지난 17일 현장취재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이날 제주도 중앙지상사는 고객들의 발길이 뜸 끊기면서 한산했다. 한창 북적거리던 점심시간에도 비교적 큰 식당에는 손님도 1명에 그쳤다. 손님보다도 종업원(3명)이 더 많은 정도다. 일부 점포들은 일요일이 아닌 아예 휴업을 하거나 문을 열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인근의 중앙로상점가와

칠성로상점가는 지하상가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루에 1000원 어치도 팔지 못하는 날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로 인근의 상점가 등은 평년 이맘때엔 설맞이 새하얀 준비하는 가족단위 고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지난해 연초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서운 겨울나기를 이어가고 있다. 동문재래시장도 관광객 방문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는 마장간지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생계가 달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식당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들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추진, ‘선도모델’ 역할 집중을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연내 설립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을 비롯한 국공립 사회복지 제공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초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 흐름속에 초기 제 역할을 찾는데 대한 고민들 관심이 높다.

도는 최근 도의원과 학계, 민간 기관·단체, 복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이달 첫 회의를 갖고,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여러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설립 가시성 통보를 받은데 이어 도의회에서 출연동의안(출연액 21억6000만원)도 의결된 상태여서 연내 출범이 확

실시된다.

관건은 1본부(5팀) 20명을 구성 예정인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든 역할 수행을 가능토록 초기 운영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거론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외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등에 전부 올인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설립 초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법인 ‘연착륙’에 전력다. 기술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빼앗는 구조를 지양, 선도모델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시대에 부각된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복합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절세하세요



홍종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1월이 되면 지난 12월 부과된 납부기한이 지난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이 외에도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소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해 두 번 납부(6월·12월)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을 일정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작년에는 1월 신청시 10%가 절감이 됐다. 올해는 1월분이 제외된 2-12월분이 합인돼 9.15%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년 중 1월에 할인율이 높아

연납 신청이 많은데 기존 연납 신청하신 분들은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연납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이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이 열려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할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를 받고 입금을 할 수도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1월 말까지 열려있으니,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절세하기 바란다.

뉴스-in

“성 소수자 혐오 의도 전혀 없었다”

강충룡 의원 유감 표명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8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의 아니게 오해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 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혐오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발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느꼈고,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의정활동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거리두기 피해 최소화 노력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18일 제주형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PC방, 사

우나, 휘트니스, 여행사 등의 업체들을 방문해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많은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방역 조치를 요구하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발작물 유통지원 강화 노력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유통지원단이 발작물의 유통지원 강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020년 1월 출범한 유통지원단은 매년 제주 발작물 유통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문제점, 개선책, 향후 과제 등을 지역 농협과 농민들에게 전달했다.

강승표 본부장은 “유통채소 주산지인 제주농업의 위상에 걸맞는 발작물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대모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승찬(前 한림수협) 어머니 제주 양씨 증화(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1월 18일 14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월 20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1월 21일(목요일)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302호 분향실
▶장 지: 한림읍 상대리 선영

아 들 김 승 찬 며느리 고 태 순
승 환 현 공 임
승 규 이 향 례
딸 김 명 순 사 위 장 천 수(숙)
명 속 양 상 훈
정 속 조 요 한

※ 연락처 : 김승찬 010-3692-5063
김승환 010-2772-6962
김승규 010-3696-574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25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연가 또는 관의인 분묘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다 음

일련번호	분묘 소재지	지목	가수	비고
1	제주시 한림읍 공암리 394-1	전	171	20년 12월 28일~29일 분묘일

2. 개장사유 : 토지 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불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한림읍 2310-31 (양지공원 분당안)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희망 후 공영공민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통의해
• 신고처 :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302 고관역 ☎ 010-4406-3495
•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묘문화팀 ☎ 728-2562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8. 기타사항 : 공고 후 허가 받기 전에 분묘가 추가된 발견 시 이 공고에 준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위공고인 : 토지주 고 관 혁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